

차 없는 일방로·포차 거리...광주시, 걷고 싶은 길 만든다

광주공원 일대 포장마차촌 편의시설 새 단장·일요일 차 없는 전당길 공유 자전거 보급 '평등 15분 자전거길' 등 연말까지 8대 대표길 조성

광주시가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심 곳곳에 다양한 테마를 담은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공원 일대 무허가 포장마차촌을 위생·편의 등을 갖춘 업그레이드형 '청춘빛 포차 거리'로 새단장하고, 광주아시아 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 사이 일방로는 '자동차 없는, 문화만 가득한 길'로 탈바꿈하는 등 연말까지 8대 대표길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회를 열고 '도시의 회복, 걷고 싶은 길'을 기치로 4대 분야 8대 대표과제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오는 5월까지 광주공원 일대를 젊음과 낭만이 있는 '청춘 빛고을 포차 거리'로 탈바꿈하고, 광주 대표 먹거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십년간 광주시민과 애환을 함께해온 광주공원 포장마차촌은 구도심 층상조와 가깝고 광주천 야

경 등이 어우러진 이른바 주당의 '2차 명소'로 사랑받고 있지만, 무허가 영업에 따른 비위생적 영업방식과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 가격, 신용카드 사용 거부, 열악한 화장실 시설, 불법주차, 야간소음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단 1차적으로 포장마차의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포장마차촌 바로 앞 공영주차장 부지(50坪)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문화광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중·장기과제로 포장마차 운영 방식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등 양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차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문화전당 주변길은 차 없는 문화의 길이 들어선다.

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을 잇는 일방로 광산길을 오는 12월부터 '일요일 차 없는 전당길'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 2차로 도로를 차로와 보도가 섞인 가변형 5차로로

확장하고, 매주 일요일이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간 200여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 무등산엔 '명품 길'이 들어선다. 시는 늦제 삼거리부터 토끼 등 비포장 구간 1.2km에 맨발 횡통길을 만들고 어린이 숲 놀이터 등 체험 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이면 역사 명소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물길, 숲길, 사람길을 잇는 '서창 감성 조망길'이 열린다. 서창 감성 조망길에는 인물테마 도보길(박호련 길, 김세근 길, 박상길, 박광욱 길), 영산강변 역사길(노을전망대-서창교 150m 구간), 나눔누리길 등 즐길거리가 가득 담길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내로 공모를 거쳐 '시민 안전길' 3곳, 공유 자전거 보급을 통한 '평등 15분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예술의전당, 아시아 예술 정원, 시립 미술관, 역사 민속박물관, 용봉재, 비엔날레 전시관을 잇는 '미술관 산책길' 등도 구축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걷고 싶은 길은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보행자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도시회복력 정책이자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라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접근성·연결성·편리성 등 3대 원칙에 집중해 정책 전환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걷고 싶은 길 분야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관련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업 경쟁력 강화

ESG 경영 지원·박람회 참가 지원 등 4개사업 공모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 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모 사업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지원 ▲광주형 선도기업 육성지원 ▲혁신기업(활동)가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등이며,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신규사업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친환경 인증, 친환경 포장재 개선, 기후위기 대응 사제품 개발, 생활용 제품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광주형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기업 2개와 지난해 선정된 기업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기업당 3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혁신적인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또는 혁신적인 활동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

는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기업 10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내용과 모집기간 등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선 브리핑

강현구 "동남갑, 생활경제·평생교육 광장으로"

광주 동남갑 후보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는 26일 4·10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회는 물론 광주시민의 지역주의를 이용만 하고 있다"며 "오늘의 광주는 과거의 광주를 넘어야 할 미래 대전환의 시기에 도달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광주에 비례해 서울 경기 중부권의 대도약과 타도시의 경제 도약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며 "광주는 시민사회의 삶이 연결되는 도시재생 건축 인프라 구축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이 시민의 삶 곳곳

에 녹아들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갑 지역구는 정치 일변지, 교육 일변지로 삶의 지표가 최상위에 다르고 있다"며 "도시적 삶의 생태 공간을 사회복지, 문화예술, 생활경제, 평생교육의 광장으로 서울 강남구 만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인공지능 실증도시 구축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분선동 터널 추가 개통 ▲재건축 용역률 상향 ▲국립 예술의전당 분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해나 기자 khn@

새우 전염병 진단 키트 개발 추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내년 기술이전·양식현장 보급 목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수산양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늘어나는 새우 법정 전염병 급성간헐장괴사병(AHPND)과 흰반점병(WSD)의 복합 진단 키트 연구 개발에 나선다.

급성간헐장괴사병과 흰반점병은 해양수산부가 지정된 법정전염병이다. 급성간헐장괴사병의 경우 전염율이 높고 어린새우가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살처분 방역조치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구분된다.

전국 최대 새우양식 생산지인 전남지역의 흰다리새우 생산량은 9504t으로 전국 생산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염병 발생이 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9개소에서 급성간헐장괴사병에 확진돼 어린새우

1522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피해 예방 및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유관대학, 제작업체와 공동연구에 나선다. 2025년부터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개발된 전염병 진단키트를 양식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찾아가는 수산생물 이동진료소와 공수산질병관리사도 적극 운영해 양식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12월 대설 피해 복구 35억 투입

지난해 12월 대설·한파 피해에 따른 전남도내 피해 농가 복구비가 35억원으로 확정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20~22일 내린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895농가 424ha에 대한 것으로, 이달 중 신속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영광 217ha, 고흥 138ha, 해남 54ha, 함평 6ha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농작물 411ha(대파 271·양파

139 등), 농업시설 12ha, 축산시설 1ha 등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씨를 다시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소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50만원이다. 시설 하우스(철재파이프 A-G형 기준)의 경우 0.1ha당 350만원, 축사(한우우사)는 약 4450만원 수준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